

**원로 임기 '10년 단임'**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원로제 도입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8월 16일 청주 보살사에서 제26차 원로회의를 개최했다. 원로회의법 개정중심으로 논의한 이날 원로회의는 종헌 제26조 원로회의의 세납을 65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원로회의의 정원을 17인 이상 25인 이내이던 것을 21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원로의원 임기는 10년에 중임이 가능하던 것을 10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임기를 마친 원로는 명예원로 의원에 추대하기로 했다. 원로위원의 추대 방식도 기존 중앙종회 추천에서, 원로회의가 직접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종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적이 인정되는 중장사찰의 경우 중창주의 권한을 인정하고, 매년 조계사 영산재를 주관해온 원명(동주) 스님을 종단 공식 어장으로 추천할 것을 총무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혜설 대전총부지서장

## 사찰음식, 대중 속으로 ...

조계종 '韓 브랜드화' 사업 동참  
산업화 · 세계화 방안 연구 맡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방부제와 식품첨가물이 든 인스턴트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우리 식탁을 점령한지 오래다.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질병이 이 같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현대 식단의 대안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사찰음식이다.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 조리하는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건강 파수꾼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한(韓)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찰음식을 한국 대표 상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한 브랜드화'는 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학 한국어 등 우리 전통문화 콘텐츠를 생활화하고 산업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

### 25일 세미나 개최, 사찰음식협의체 구성 등 본격 행보

는 사업. 이 중 한식 분야에 포함된 '사찰음식 대중화 · 세계화 방안 연구'를 조계종이 맡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이미 지난해 12월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실태 조사를 동국대 가정학과에 의뢰했다. 사찰음식 조리 현황과 사찰음식 원형을 살피기 위해서다. 동국대 가정학과는 3개월에 걸쳐 사찰 후원 관리 담당자 인터뷰와 설문 등을 통해 사찰음식 현황과 전수 실태를 파악하고,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점검했다. 조계종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사찰음식 표준 조리법을 만드는 한편, 이를 단체급식 · 호텔식 · 대중음식점 등에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8월 25일에는 '사찰음식의 우수



성 및 대중화 방안' 주제 세미나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국내외 내로라하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찰음식 대중화 방안을 모색한다. 저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이 '사찰음식의 정신'을,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이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이심열 교수(동국대 가정학과)가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심열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사찰음식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사찰

음식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찰음식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다양한 사찰음식을 보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망한다.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조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 박종화 문화팀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착 필요계 내에서는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사찰음식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찰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찰음식은 불가(佛家)의 식문화를 넘어 현대인들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에 우리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년 재근 스님 군산 관음사 회주



시방세계 9면 간화선 지도인력...임제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신아출판사 서정환 대표

원각사 재기능강 중계 7면 CEO, 사찰서 만나다 10면

열대과일 잘못 먹으면 27면



## 더위도 산통도 두렵지 않다

봉선사 능엄학림 공개특강, 월운 스님 직접 지도에 60여 학인 '학구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14일 오전 7시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 이른 아침인데도 60여 스님들이 <화엄경>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17일까지 4일간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봉선사 능엄학림 하계 단기 공개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수강생들이다. 이번 특강은 동국대경원장이며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인 대강백 월운 스님이 경학발전을 위해 경학 공부에 뜻을 둔 스님들에게 전통방식의 수업을 체험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공개특강은 두개 반(화엄반, 선오반)으로 나눠 매일 오전 7시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날 강의는 월운 스님이 오전 7시10분쯤 강단에 앉자 시작했다. 월운 스님은 "경학은 20년 이상은 해야 완가를 조금 알게 될 정도로 어려운 길"이라며 "앞으

로 불교를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 경학에 능통한 스님들이 많아야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큰 원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고 경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수강생들의 눈빛이 자못 진지해졌다. 수업은 전통방식인 대나무 산통을 이용해 일종의 제비뽑기로, 수업시작전 뽑힌 학인스님이 전날 미리 예습한 <화엄경> 현토를 짚고 읽고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운정법(海雲聽法) 선주의승(善住依備)..." 스님의 강독에는 막힘이 없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비구인 덕은 스님의 법문을 듣는 장면이다. "출몰하구나, 선남자여, 남쪽의 해문국에 해운 비구가 계시니 보살도를 여쭙면 광대한 선권을 내는 인연을 분명해 설할 것이다."

중간에 월운 스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잠시 학인 스님의 강독이 끊겼다. "잠깐, 네 번째줄에 '당문표석(當門標石)'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뜻인지 아는 스님?" 이 글자는 자주 나오는 것이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월운 스님은 "대답이 없다는 것은 모두 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혀 몰라서 무슨 질문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까?" 부드러운 힐난(?)에 학인스님들이 박장대소하자 연속했던 비구에게 여유가 생겼다. 월운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당문표석"에서 '당문'이란 그 문장에서 의미로 이 네글자를 풀이해보면 한문장 한문장에서 지표와 초석이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학인 스님들은 그제서야 놓치고 있는걸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월운 스님은 이렇게 중간중간 경구해서



남양주 봉선사 능엄학림 하계 단기공개특강 입학식이 8월 13일 청풍루에서 봉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봉선사 주지 월안 스님, 회주 월운 스님, 조실 월운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은 물론 경전의 맥과 흐름을 짚어주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사기(私記)'도 가르쳤다. '사기'란 선배 학인들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주석을 단 일종의 '학습 해설서'다. 선배 수행자들이 경학을 공부할 때 흘린 땀방울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문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기는 초서로 필사돼 읽기조차 힘들지만 오랜세월동안 쌓아온 경학의 지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귀한 자료다. 전통방식의 강의에서 핵심이 되는 교재이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는 사기와 함께 경전의 주제별 목차인 과도(科圖)도 강의했다. <선오반> 수강생인 대정 스님은 "학림에서 경전 공부를 할때에는 교과서인 원전뿐만 아니라 3-4개의 사기를 함께 배

우기 때문에 학습할 양이 엄청 많다"며 "오전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오후 7시에 있을 논강 준비로 눈고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부처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며 깨달아가는 그 기쁨은 환희심이 날만큼 크다"고 즐거워 했다. 무더운 여름날 무한한 인내를 요구하는 능엄학림 공개특강은 어느덧 4일이 지나 수료식을 맞게 되었다. 60여 수강생들은, 엄격한 전통방식으로 경학을 공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을 선배 수행자들의 서툰말 같은 수행 정신을 들뜬 배웠다 고 회향식대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공개수업에 참여한 스님들 대다수는 이번 공개특강이 매년 열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쳤다.

봉선사/글=김주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미륵성지 용화종찰 미륵전(국보62호)

## 국내최대 소조불 법화림보살, 대묘상보살 복원 불사 모연문

삼보님께 지심정례 하옵니다.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서기599년) 왕실 자부사찰로 창건된 이후 통일신라 해공왕 2년 해동제일유사 진표율사께서 미륵장유상을 봉안하고 십선계법과 유식법상의 종지를 개창하여 용화종찰로서 미륵성지가 되었으며 고려 때에는 해덕왕사와 도생승통 등이 주석하였습니다.

임진 · 정유 양란 때에는 처영 뇌육대사께서 수천의 승병들과 함께 호남 승병장으로서 구국 삼화상이 되어 왜적들에게 최후까지 항전하시다 분사 하였고, 80여종의 당우와 40여 암자가 전소되는 법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수문대사께서 35년에 걸쳐 금산사 복원불사를 추진하고, 인조대왕의 내탕금등으로 현재의 대사구지역을 재건하였으며, 이때 미륵전 삼존불도 토굴로서 국내 최대의 소조불로 조성되어 400여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심과 원력이 부족한 탓으로 금번 장마와 폭우의 영향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협시보살인 법화림보살님께서 손괴되어 제행이 무상함을 느끼는 동시에 불보살님을 제대로 시봉하지 못했음을 금산사 대중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부대중께 참회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법화림보살님과 동시대에 조성된 대묘상보살님도 함께 복원불사를 하여 하루빨리 옛 모습을 되찾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올립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널리 불사를 하였던 소조불은 다른 불사에 비하여 몇 배 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함으로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도 받아 자자손손 만대에 걸쳐 줄 복원불사를 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라마지 않으며 인연 맺으신 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앙축합니다. 성 불 하십시요.

불기 2550년 음 7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증명 : 회주 태공 월주 대종사  
주지 벽산 원행 계 수

복원불사 추진위원회

- 중 명 : 태공 월주 대종사
- 자문위원 : 도영, 도원, 도법, 도일, 평상, 평중, 이상무, 홍종길, 이강령, 이도호, 권희선, 채규수, 문석순, 김태진, 권태진, 권두삼, 김진수
- 추진위원장 : 벽산 원행
- 부 위 원 장 : 원광 영진, 김백호, 김해수, 임규래, 채규수, 김경자
- 추 진 위 원 : 제17교구 사암 주지스님 및 신도회장 전북지역 신도, 신행단체장 및 임원
- 집행위원 : 원해, 덕산, 도안, 석문, 대명, 덕림, 원성, 보순, 이근재, 이정휘, 허유호, 김영호, 홍대법성, 강평등성, 조대원행, 권익순, 한광수, 송영호
- 화 주 : 태공 월주 대종사 문도
- 유관영행, 이인례, 오옥남, 정순례, 주정기, 서백련성, 도인기, 문화자, 박현용, 오준근, 고귀월, 김기운, 이두연, 송명자, 고정관, 박상성, 박동창, 한광수, 이재홍, 우용호, 박경순, 김영애, 이정자, 박병남, 김동현, 이태환, 이동원, 유재민, 정희숙, 이치영, 신윤기, 송명성, 김진태, 양현삼, 송의정, 장명욱, 김수원화, 손석기, 전용우, 이정성
- 사무국장 : 이원일, 총무과장 : 김종렬, 중무원 : 권선오, 학예사 : 김미란

동참문의 접수 : 063)548-4440~2 (금산사 중무소)  
동참 계좌번호 : 농협 525133-51-001880